

#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하는 당연 필연 절대적인 지혜

-복음으로 여는 잠언-

잠언1:1-7, 골로새서2:3

정윤돈 목사님

“우주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사탄에게 속아 죄에 빠져서 이 땅에서 오만가지 고통 속에서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이제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할 수 있는 237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서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때를 따라 모든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잠언의 대부분은 솔로몬 왕이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잠언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 지혜를 알려주고 있다. 첫 번째는 당연한 지혜, 두 번째는 필연적인 지혜, 세 번째는 절대적인 지혜이다. 잠언은 지혜의 가치를 말씀하고 있다. 잠언 전체의 핵심적인 키는 지혜이다. 왜 지혜를 강조하였는가. 지혜와 그리스도와 말씀은 동격이기 때문이다. 그 지혜의 뿌리와 근원이 그리스도, 하나님이다. 지혜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이다. 성경을 읽었던 유대인들은 모든 철학, 분야에서 앞서고 있다. 우리는 최고의 지식,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복된 자임을 믿기를 바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상을 치유하는 사명을 주셨다. 잠언 4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지혜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서 나오는 ‘지혜’라는 단어를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바꾸어 읽으면 더 정확한 복음적인 해석이 될 것이다. 창세기 3장 이후 인간들의 모든 지혜는 어두워지고 미련해지고 더러워지고 말았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지혜이시고 말씀이시기 때문에 지혜의 말씀인 잠언을 공부하면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전도서밋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혜가 없으면 가정도 교회도 지킬 수 없고 참된 전도와 선교도 지속할 수 없다. 이 참된 성경적인 지혜를 알려주는 곳이 바로 다락방과 미션홈과 지교회야 되어야 한다. 오늘은 이 잠언을 통하여 현장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당연, 필연적인 절대적인 지혜를 발견하기를 축원드린다.

**1. 첫 번째에서는 잠언에 기록된 당연한 지혜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들은 설명해 드리고자 한다.** 성도분들은 이번 주간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인간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할 말씀들이 무엇인지 찾아보기를 바란다. 그 당연한 지혜의 말씀들이 각인, 뿌리, 체질 되었을 때 정상적인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기본치유이다.

(1)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당연한 지혜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다.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이야 네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6장 20절이다. ‘내 아들이야 네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다음은 잠언 15장 20절이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부모님들이 부족하고 틀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램프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자세를 갖춘다면 하나님께서는 직접 축복을 주실 것이다.

(2) 잠언에서는 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지혜이다.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 12장 6절에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복음적인 사람은 생명을 살린다. 잠언 12장 25절이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다락방과 지교회에서 이것을 해야 한다. 잠언 16장 24절이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우리는 옳은 말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말을 해야 하겠다. 잠언 18장 8절에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배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여기서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라는 히브리어로 ‘니르간’은 ‘혈뜩는 자, 수다쟁이, 중상자’라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에 금 사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것은 그 소리가 아름답다는 의미이다. 잠언에서는 말에 대한 내용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다. 우리는 말을 조심히 해야 하겠다. 그리고 복음과 성경의 말씀만 더 많이 전해야겠다.

(3) 잠언 6장 6절에서 8절에서는 개미의 교훈을 통해서 당연히 알아야 할 지혜의 말씀을 하고 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며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자발적인 자세, 미리 준비하는 자세를 말한다. 우리도 RUTC에서, 교회에서 이것을 해야 한다.

(4) 잠언 6장 9절에서 11절에는 게으른 자와 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쫄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네 끈뱀이 군사 같이 이르리라’ 사실 이러한 게으름과 가난도 영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와 원색적인 복음만 증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능이라는 흑암이 껴지면 어느 순간 변화가 되게 된다. 이외에도 잠언에서는 당연히 알아야 할 많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

**2. 두 번째로 잠언에는 서밋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지혜의 말씀들이 있다. 그것이 필연성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성도들과 후대들에게 가정, 사회, 정치, 경제, 문화의 현장에서 서밋이 되도록 이 잠언 말씀들을 알려주어야 하겠다. 이 말씀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장에서 승리하기 위한 9가지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다.

(1)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자가 된다는 필연적인 지혜를 말씀하고 있다. 잠언 10장 4절 말씀을 보겠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한 책을 읽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작은 부자는 절약하면 될 수도 있고, 중간 부자는 부지런하면 될 수도 있고, 큰 부자는 인재들을 활용해서 남들이 못하는 것들을 재창조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한다. 앞으로 우리 성도들과 후대들은 오직 예수 안에서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받기를 축원드린다.

(2)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지혜는 책망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다. 잠언 9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누군가가 책망하는 말을 했을 때 ‘내가 고쳐야 하는 부분이구나.’ 생각만 해도 바뀐다.

(3) 잠언에서는 술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 중독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지혜이다. 어리석은 자는 여기에 빠지게 된다. 잠언 20장 1절이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잠언 23장 31절에서 35절에는 중독된 자의 모습이 나온다.

(4) 속지 말아야 할 필수적인 지혜가 있다. 잠언 26장 16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혹시 게으르더라도 정직하기만 해도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이다.

(5) 가정을 위한 필연적인 지혜를 말씀하고 있다. 행복한 가정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하고, 현숙한 여인을 만나야 한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0절에서는 현숙한 여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자신의 영적상태를 바르게 갖는 것이 중요하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만나니 산업이 꺾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 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산업)' 31:14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 오며(무역)' 31:15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중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직원들 관리)' 31:16 '밭을 살펴 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31:17 '힘 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성실함)' 31:18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장사)' 31:19 '손으로 솜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봉제업)' 31:20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구제, 복지)' 31:21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준비성)' 31:22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자신에게도)' 31:23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남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지역사회)' 31:24 '그는 베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31:25 '능력과 준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머리 붐)' 31:26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복음증거)' 31:27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미션홈)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느니라(부지런함)' 31:28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자녀에게 인정받음)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31:29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남편에게 인정받음)' 31:30 '고운 것도 거저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완전복음의 여자를 의미한다. 결국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 4차 산업시대의 전문 여성 산업인이라고 볼 수 있다. 약 3,000년 전에 잠언에서는 현대여성상을 알려주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램넛트들을 복음적이고 언약적인 아내와 어머니로 양육해야 하겠다. 이것은 사탄에게 빼앗긴 가정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도 가장 필요한 최고의 지혜요 절대목표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다음으로는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말씀들이다. 자녀양육을 위해 필요한 말씀이다. 잠언 23장 13절이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경영을 위해 필요한 말씀으로는 잠언 15장 22절이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분과 노에 대한 말씀으로는 잠언 14장 29절이다.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3. 세 번째로 잠언에는 절대적인 지혜를 위한 말씀들이 있다. 절대성이다.** 절대 지혜란 하나님을 믿는 지혜이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이다. 즉, 절대 지혜란 하나님, 구원, 복음, 믿음과 관계되는 말씀들이라 할 수 있다.

(1) 잠언에서 말하는 첫 번째 절대지혜의 말씀은 잠언 1장 7절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불신앙, 죄, 사탄의 울무, 틀,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참 빛과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는 복음적인 지혜를 가질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강단의 말씀과 훈계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것이 근본문제이다. 이 근본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모든 것이 되어 진다.

(2)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판단과 경험과 생각만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다. 잠언 3장 5절을 보겠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믿고, 주께 맡기고, 기도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신뢰해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를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절대주권을 가지고 계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인간은 지혜, 이성,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악의 근원을 알 수 없으며,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다.

(3) 잠언에 나오는 몇몇 구절은 '지혜'나 '명철'이라는 말씀을 '그리스도'로 바꿔서 읽어보면 어떤 성경책보다 복음적인 성경책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혜라는 단어를 그리스도로 바꾸어 읽어 보도록 하겠다. 잠언 8장 11절이다. '대저 지혜(그리스도)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잠언 10장 23절이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그리스도, 복음, 진도)로 낙을 삼느니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란다.

(4) 또한 잠언 8장 21절에서 31절에서는 나와 지혜와 그리스도를 같은 의미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나(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그리스도)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그리스도)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기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그리스도)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그리스도)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은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도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그리스도)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 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그리스도)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저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잠언은 절대적인 지혜이며 지식이며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있다. 그러면서 최고의 절대적인 지혜는 우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잠언 16장 3절이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항상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결론으로 오늘은 잠언을 통해서 우리들의 CVDIP를 발견하고자 한다.

1. Covenant, 언약이다. 우리들의 언약은 참되고 영원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숨겨져 있어서 찾아야 한다.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공부, 전도, 현장캠프, 훈련 받는 것이다.

2. Vision, 우리의 비전은 237 나라 5천 종족과 TCK들에게 당연하고, 꼭 필요하고, 절대적인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3. Dream, 꿈이다. 우리의 꿈은 세 가지 지혜로 충만해서 24시간 복음과 공부,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25의 응답과 영원한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4. Image, 이미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이제 잠언을 깊이 묵상하는 일에 올인 한다면 모든 어리석음에서 돌아와 되고, 모든 것을 올체인지 할 수 있는 남은 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5. Practice, 실천이다. 잠언의 말씀 중 내 마음에 공감되는 말씀을 한 가지씩 계속 실천해 보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21세기 4차 산업, 인공지능의 시대에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잠언의 세 가지 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자유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축원드린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약하고 부족하며 어리석은 저희들을 위해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깨달아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축복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